

“24시간 영업 얼마만이나”…소상공인들 화색이 돈다

오늘부터 ‘위드 코로나’…일상 회복 기대 부푼 광주 상가

식당·카페 등 손님 증가 대비 알바생 다시 구하고 식재료 주문 늘려 헬스클럽 수건 추가 구입하고 음식 섭취 가능해진 영화관 준비 분주

아르바이트생 구하기에 나선 술집 대표, 24시간 영업 앞두고 대정소 시작한 노래연습장 사장, 새 수건 구입한 헬스장 관장 등 정부가 발표한 ‘위드 코로나’ 시행을 하루 앞두고 지역 소상공인들은 바쁜 주말을 보냈다.

벼랑 끝으로 내몰렸던 자영업자들은 매출 회복에 대한 희망에 부풀었고 시민들도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서 주점을 운영 중인 A(31)씨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이 발표된 지난 29일,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함께 일할 분을 찾습니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1일부터 새벽 3시까지 영업할 생각인데, 28평 규모의 주점을 2명이 운영하기엔 벅찰 것 같아 아르바이트생을 모집중”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동구 충장로 닭갈비 전문점 입구에 직원 모집 안내문이 걸려있다.



광주시 동구 충장로의 한 닭갈비 전문점 입구에 직원 모집 안내문이 걸려있다.

채소값이 부쩍 올랐지만 위드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에 망설임 없이 주문량을 늘렸다는 게 B씨 설명이다.

B씨는 “많이 팔면 남는 게 장사다. 손님들만 많이 찾는다면 채소값이 올라도 문제가 안된다”면서 “깎인 한 묶음 가격이 몇 달 전보다 50% 가까이 올라 1500원 수준이지만 손님이 늘어날 것을 생각해 주저하지 않고 장을 봤다”고 말했다.

극장가도 ‘위드 코로나’를 대비하느라 바쁘다. 영화관의 경우 영화를 보면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동구 충장로의 C영화관은 1일부터 팝콘 기계에 팝콘을 가득 채워놓으라는 본사 연락을 받고 점점에 들어갔다. 상영관 내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해 저조했던 팝콘 등 스낵류 판매량 급증에 대비하라는 지시다.

한 직원은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접종자는 상영관 안에서 팝콘이나 음식을 먹을 수 있어 본사에서 팝콘을 많이 만들어두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



위드코로나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31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충장로가 휴일 외출을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내일부터는 예전처럼 양손에 팝콘과 음료를 들고 입장하는 관람객들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서구의 한 헬스클럽 대표 C씨는 최근 수건 200장을 추가로 사들여 회원들을 위해 센터에 비치했고 서구 치평동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D씨는 남편과 함께 이른 시각부터 연습장을 찾아 대정소를 하는 등 ‘위드 코로나’를 준비했다.

도심 곳곳에서 만난 시민들도 기대감을 역력히 드러냈다. 당장, 사적모임 인원이 12명으로 늘면서 “부부동반 단풍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며 여행사와 콘도 등을 문의하는가 하면, 모처럼 배구 경기 직관(현장관람)을 하겠다며 온라인상으로 경기 시간 등을 들여다봤다는 시민들도 보였다.

배구팬인 김인영(34)씨는 “AI페퍼저축은행 경기 직관을 하려해도 인원수 제한으로 예매가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보다 쉽게 경기장에서 관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동구 지역예방접종센터 업무 종료 ‘뿌듯해요’

“내년 5월 예상했는데”…접종 완료율 70% 넘어서 조기 마무리

광주시 동구 지역예방접종센터가 운영 6개월 만에 문을 닫는다. 지역민들 백신 접종을 담당하면서 예상보다 빨리 목표를 달성하면서 직원들 얼굴에는 뿌듯함이 묻어났다.

지난 31일 동구청에 따르면 동구 지역예방접종센터는 지난 4월 15일 문을 연 뒤 목표했던 접종 완료율 70%를 넘어서면서 운영 6개월 만인 지난 29일 업무를 마무리했다.

그동안 동구 지역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주민들은 1차 2만 3697명, 2차 2만 3218명 등이다. 동구지역 백신 접종 완료자(7만 7992명)를 기준으로 29.7%가 지역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을 맞았다.

조목영 보건사업과장은 “내년 5월이 되어 접종

률 70%를 달성해 운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렇게 빠를 줄 몰랐”고 말했다. 접종센터 자원봉사자들은 지난 29일 오후 4시 30분께 마지막 백신 접종자를 끝으로 노란색 조끼를 반납했고 직원 등 의료진은 마지막 순간을 기념하는 사진을 찍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동구는 지난 30일 기준으로 전체 주민 10만 3554명 가운데 7만 7992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해 접종률 75.3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동구 이외 나머지 기초자치단체 지역예방접종센터도 11월중 업무를 종료할 예정이다. 60세 이상 고령자들 대한 추가접종(부스터 샷) 등 코로나19 백신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받게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SNS에서 성행하는 소액 대리입금 악용 ‘먹튀’ 4개월간 1300만원 챙긴 30대 징역 1년 선고

A(31)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에서 알게된 B씨에게 ‘자격증 시험 등록을 해줘 하니 빌려주면 다음날 사례금까지 갚겠다’고 쪽지를 보내 두 차례에 걸쳐 12만원을 받고 연락을 끊었다. C씨의 트위터 계정도 쪽지를 보내 ‘은행갈 수 없는 상태니 3만원을 대리 입금해주면 오후에 사례비 포함해 입금하겠다’며 7차례에 걸쳐 26만원을 받은 뒤 ‘먹튀’했다.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성행하는 이른바 소액 대리입금 거래를 악용, 4개월 간 받아 챙긴 돈만 1000만원이 넘는다.

대리입금은 SNS 상에서 소액을 단기로 빌려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이자를 받는 ‘금융거래’다. 주로 용돈이 부족하거나 부모님 몰래 결제할 필요가 있는 청소년들이 며칠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대리입금을 해주는 행위는 ‘불법 사금융’ 행위로 대부업법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또 신원 확인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만큼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도 있다.

이 때문에 대리입금 영업 사실이 알려질까 우려하는 피해자들 입장을 악용, 돈을 입금받은 뒤 연락을 끊는 ‘먹튀’ 현상도 많다는 게 수사기관 설명이

다. 일각에서는 수고비와 지각비 명목으로 고액의 이자를 받는 등 고금리 사금융 범죄에 활용되기도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SNS 트위터 대리입금 계정 운영자들에게 쪽지를 보내 소액을 입금받아 가로채는 방식으로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 간 100여차례에 걸쳐 13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00여차례 넘게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변제한 점, 계속 피해 변제 기회를 줄 필요성 등이 있어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 징역 1년 9개월 선고

최규성(71) 전 농어촌공사 사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심재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9개월,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억7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지위를 이용해 청탁하고 사업수주 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점도 모두 인정된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 전 광산업진흥회 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75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2019년 2~8월 군산시 발광다이오드(LED) 가로등 개선 사업 입찰 참가업체 두 곳을 상대로 각각 사업 수주를 약속하고 공무원 청탁 비용 등을 이유로 업체로부터 6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5~9월 전기설비업체 운영자 4명에게 농어촌공사 저수지 태양광 시설 공사 수주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2019년과 2020년 구미시와 군산시 LED 가로등 사업 입찰 업무를 위탁받아 진행하면서 사업을 수주한 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7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강력추천! 투자가치 100% 확신!

다세대빌라

(북구 운암동)

■ 대 지 : 364 m²

■ 건 물 : 411 m²

■ 층 수 : 3층

■ 세대수 : 6세대

■ 평 형 : 24평형

매매가 : 495,000,000원

상담 010-3733-3933